

2023. 10. 28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2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소방재난본부 소방정책팀

소방정책팀장

김 성 철

02-3706-131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2쪽

담 당 자

정 다 정

02-3706-1314

서울시, 재난안전 국제협력 강화...인도네시아 소방관계자 초청 연수

- 10.30.~11.3. 인도네시아 소방공무원 등 초청 서울소방학교 등에서 연수 실시
- △전기차 화재진압 △소방차량 가상현실(VR) 훈련 등 소방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 등
- '16년부터 총 14회 9개국 개발도상국 재난안전분야 관계자 117명 참여

-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“재난관리 기술 및 경험 전수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소방학교에서 외국 소방관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”라고 28일(토) 밝혔다.
-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 예정된 이번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대상국과의 우호 증진과 더불어 서울의 우수한 소방안전 정책 및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.
-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상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내무부 관계자 및 소방공무원 8명으로, 해당 나라의 소방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직 및 실무 담당자들이다.

- 이번 초청의 핵심인 현장실무 교육에서는 10명의 재난안전분야 전문강사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소방교육 체계 및 서울소방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등 10개 전문과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.
- 특히 이번 초청 연수에는 서울소방학교에서 특성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△전기차 화재진압 △소방차량 가상현실(VR) 훈련 △붕괴 현장 인명 탐색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.
- 또한 서울소방학교의 전문화 과정 이수 후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, 119특수구조단 등을 방문하여 서울의 우수한 재난대응시스템 등을 견학하고 재난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.
- 한편,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외국소방관 초청 교육훈련에는 총 14회 9개국 117명의 재난안전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.
- 이 밖에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 이를 위해 국제 위기관리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불용소방차를 양여하는 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.
-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“서울소방은 축적된 재난안전 관련 선진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전수 중”이라며 “이를 통해 대상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격 및 위상 제고에도 힘쓰겠다”라고 말했다.